

주부의 채소 소비형태 및 영양지식에 대한 연구

강금지·정미숙

덕성여자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가정학과
(1995년 9월 10일 접수)

A Survey on Housewives' Consumption Pattern and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

Keum Jee Kang and Mi Sook Chung

Department of Home Economics, College of Natural Sciences, DukSung Women's University
(Received September 10, 1995)

Abstract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sumption pattern and nutrition knowledge about vegetables of 184 housewives attending the school of adult and continuing education attached to DukSung Women's University. The results were summarized as follows; the average vegetable expenses were 10,000~20,000 won per week. The frequency of purchasing vegetables was 2~3 times a week. Respondents usually bought the vegetables at local markets and supermarkets. As for buying vegetables, all of respondents kept in mind all the time the organic vegetables were better. The price was the most important factor of their purchase in the low income households. In the family, the vegetable dishes were favored by housewives most and by sons least. Among the vegetable cooking methods, Kimchi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and salad was the least. Forty four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purchasing ready made vegetable dishes in the market. The reason they bought ready made ones was the special taste of the dishes. The rest of respondents never bought cooked vegetable dishes because they thought the dishes unsanitary. Twenty seven percent of the respondents experienced purchasing Kimchi. The reason for not purchasing Kimchi was the housewives' traditional prejudice of buying Kimchi in the market. Respondents have a considerable knowledge that 42 kinds of vegetables could be good for certain disease and 10 kinds of vegetables might be harmful for certain disease.

I. 서 론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채식위주의 식생활을 영위해 왔으나 외래문화의 도입 및 80년대 이후 고도의 경제 성장 등에 의하여 90년 현재는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급증하여 약 264 g으로 1948년의 29 g에 비하여 동물성식품의 소비가 약 9배가 증가되었으나 식물성식품의 소비량은 1948년에 488 g에서 90년 1075 g으로 2배 이상 상승되었다¹⁻⁴⁾. 한국인의 1일 평균 식이섬유 섭취량은 1969년 24.46 g에서 1990년에는 17.31 g으로 줄어 22년 동안 약 30%가 감소되었으며, 신선한 채소류에 의한 식이섬유의 섭취비율은 감소추세를 보였으나 가공채소류에 의한 비율은 증가추세를 나타내었다⁵⁾. 이러한 식습관의 변화 및 고도의 산업화 등으로 인하여

각종 암이 1993년 우리나라 사망원인의 1위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뇌졸중 등의 혈관질환이 많았다⁶⁾.

채소에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질은 인체 내에서 영양소의 소화, 흡수를 지연시켜 당뇨병환자의 당내성을 증가시켜주며⁷⁾ 장내에서 담즙산 및 콜레스테롤을 흡착하여 대변내 이들의 배설과 지단백질의 대사에 변화를 주어 혈청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켜 심장병 및 대장·결장암의 발병율을 감소시키는 효과⁸⁾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채소섭취의 감소는 암 및 혈관 질환 등의 질병 증가와 직결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일상생활에서 채소섭취에 유의하여야 한다.

식문화의 형성에는 거주지역, 소득수준, 가족구성, 주부의 가치관 및 사회적 환경 요인이 관여하는데 최근 주부들의 우리 농산물에 대한 높은 관심과 전통식품을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이 확산되고 있어 우리 식문화가 제정비되려는 시점에 있다고 하겠다. 이러한 시기에 채소섭취의 증가가 이루어져 성인병의 감소를 꾀하여야 하겠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채소 소비에 관련된 자세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대학생, 고등학생 및 어린이 등의 여러 대상을 중심으로 한 식품에 관련된 조사⁹⁻¹²⁾는 많이 수행되어 있으나 채소 소비형태에 관련된 연구는 이루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주부를 대상으로 채소 소비형태와 채소의 영양 및 관련된 질병의 지식을 조사하여 현재 우리나라 채소섭취 상황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1. 조사대상 및 조사기간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주부학습자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994년 9월 1달간 30부의 설문지를 배부하여 예비조사를 거쳐 설문지를 수정하였다. 본 조사기간은 10월 10일부터 21일까지 3주에 걸쳐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250부가 배부되었고 회수된 설문지는 211부(회수율 84.4%)였으며, 이 중 불완전한 응답의 설문지를 제외한 184부를 통계처리에 사용하였다.

2. 조사내용 및 방법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으로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거형태, 가족구성, 가족수, 월수입 및 직업유무를 알아보고, 채소의 구입에 관련된 사항은 채소의 구입비용 등의 5가지 문항으로 나누어 조사하였으며 채소섭취에 관한 사항 3문항, 채소의 조리법, 가공된 채소반찬 구입의 4문항, 김치구입여부의 4문항 및 채소의 영양 및 관련된 질병의 5문항 등의 7가지로 크게 분류하여 조사하였다.

채소 구입시 우선적 고려 요인 조사는 기호도, 영양가, 가격 및 부공해의 네가지 요인을 제시한 후 가장 먼저 고려하는 요인을 1점, 마지막으로 고려하는 요인에 4점을 주어 순위자료 분석을 하였다. 채소 조리법 설문은 우리 나라 전통 채소 조리법인 숙채, 생채, 김치류와 서양 조리법인 샐러드의 네가지 조리법 가운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리법에 1점, 자주 이용하지 않는 것에 4점을 주어 순위자료분석을 하였다. 채소와 관련된 질병에 좋은 채소와 해로운 채소의 조사는 설문 응답자가 알고 있는 사항을 묘사적 표현으로 기록하도록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3. 자료분석방법

자료의 분석은 SAS computer program을 이용하였다. 조사대상자의 연령 등의 일반사항은 빈도 및 백분율로 나타냈으며, 각 문항의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상관성은 Chi-square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순위자료는 proc prinqual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SAS program의 proc prinqual은 순위자료의 최적척도화 방법으로 순위값이 작을수록 우선적 고려요인 또는 자주 이용하는 조리법에 해당된다.

III. 결과 및 고찰

1. 조사대상자의 일반사항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의 주부학습자들로서 이들의 연령, 교육수준, 거주지역, 주거형태, 가족구성, 가족수, 월수입 및 직업유무를 조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조사대상자의 연령은 30대가 40.8%, 40대가 32.6%, 20대가 17.4% 및 50대가 9.2%로 30대와 40대의 비율이 73.4%를 차지하였다. 학력은 고졸이 57.6%, 전문대졸 이상이 36.9%였으며, 거주지역은 서울이 77.2%, 서울로 통학이 가능한 서울에 인접한 지방도시가 22.8%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는 아파트가 50.5%, 단독주택이 28.8% 및 연립주택이 15.8%였으며, 가족구성은 핵가족이 78.8%, 확대가족이 20.1%이었고 가족수는 4~5인이 56%, 2~3인이 30.4%, 6~7인이 10.9%였다. 월 평균수입은 150만원 이상이 50%, 149만원 이하가 50%로 나타났다. 우리나라 1994년 도시근로자의 월 평균소득이 145만원이고 서울근로자가 157만원¹³⁾이므로 이는 중간층에 해당하는 수준이라고 하겠다. 직업이 있는 조사대상자는 15.1%(28명)로 part time 일을 하는 주부는 시간제 학원강사들이 주류를 이루었으며, 대부분의 조사대상자가 전업주부(84.8%)로 나타났다.

2. 채소의 구입

채소의 구입비용, 구입빈도 및 구입시 상태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일주일 단위로 지출되는 채소의 구입비용은 연령, 수입, 교육수준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계없이 1~2만원이 가장 많았고, 1만원 이하와 2~3만원, 3~4만원, 5만원 이상의 순서로 나타났다. 채소의 구입빈도 역시 연령 등의 변인과는 무관하게 대부분 일주일에 2~3회 구입한다고 응답하였다. 신선한 채소를 구입할 때는 손질 후 포장되어 있거나 약간 손질된 채소보다는 흙이 붙어있는 손질이 거의 되지 않은 채소를 주로 구입하는 것으로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Characteristics	Frequency (N)	Percent (%)
Age		
Under 29	132	17.4
30~39	75	40.8
40~49	60	32.6
50~59	17	9.2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	5.4
High school	106	57.6
Junior college	28	15.2
College	37	20.1
Graduate school	3	1.6
Residential area		
Seoul	142	77.2
Suburb	42	22.8
Housing		
APT	93	50.5
House	53	28.8
Tenement house	29	15.8
Shopping area	5	2.7
Others	4	2.2
Family type		
Nuclear family	145	78.8
Extended family	37	20.1
Others	2	1.1
Size of family		
Single	5	2.7
2~3	56	30.4
4~5	103	56.0
6~7	20	10.9
Monthly income (ten thousands won)		
50~99	31	16.8
100~149	61	33.2
150~199	40	21.7
Over 200	52	28.3
Occupation		
Full time housewife	156	84.8
Professional	5	2.7
Clerical work	3	1.6
Service	10	5.4
Part time	10	5.4

나타났다.

채소의 구입장소를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게 한 후 연령별로 나누어 Table 3에 제시하였다. 채소의 구입은 시장의 채소가게와 농협을 포함한 슈퍼마켓에서

대부분 이루어졌으며 노점상, 구멍가게 및 아파트 정기시장에서의 구입은 빈번하지 않았다. 백화점에서 채소를 자주 구입하는 연령층은 30, 40대 주부가 가장 많았다($p < .05$). 조 등¹¹⁾은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아파트 주거형태가 증가하면서 백화점이나 대형쇼핑센터에서의 식품구입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하였으며 남궁¹⁴⁾에 따르면 무공해 식품의 경우 첫번째로 이용되는 구매장소가 슈퍼마켓이었으며 백화점, 시장, 인근·가게 순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주부가 채소를 구입할 때 주로 재래식 시장과 농협을 포함한 슈퍼마켓에서 흠이 붙어 있는 손질되지 않은 상태를 구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가 채소를 구입할 때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proc prinqua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채소를 구입할 때 기호도, 영양가, 가격 및 무공해 중 어느 요인을 가장 고려하는지 순서대로 적게 하였을 때 교육수준, 연령 및 수입에 따라 고려하는 요인이 다르게 나타났다. 채소를 구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요인을 응답자의 교육수준을 기준으로 살펴볼 때 중졸의 경우 무공해, 고졸·전문대졸·대졸은 기호도를, 대학원졸은 가격이였다. 가장 고려하지 않는 요인으로 중졸·대학원졸은 기호도, 고졸·대학원졸은 가격 그리고 대졸은 영양가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살펴볼 때 20, 30 및 40대는 기호도를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하였으나 50대는 무공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였으며 채소구입시 20, 30 및 50대는 가격을 가장 고려하지 않았고, 40대는 무공해를 마지막 고려요인으로 꼽았다. 또한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월수입액에 관계없이 기호도를 가장 먼저 생각하였고, 월수입 100만원 이하는 가격을 두번째로 고려하였으나 수입이 증가할수록 가격을 덜 고려하는 경향을 보였다.

Jolly 등¹⁵⁾에 의하면 소비자가 식품을 구입할 때 가장 고려하는 요인은 안전성이며 그 다음으로 영양가, 맛, 가격 순서라고 하였으며 한 등¹⁶⁾도 안전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며 가격은 마지막 결정요인이라고 하였다. 또한 McNutt 등¹⁷⁾도 안전성을 가장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였다. 남궁 등¹⁸⁾은 주부소비자들이 식품구입시 무공해 식품에 대해 대체로 관심이 있으나 소비정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데 그 이유는 무공해 식품이 품질면에서 다소 부정적이며 가격도 비싸다고 인식하기 때문으로 해석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부가 채소를 구입할 때 무공해 여부에 관심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수입이 적은 경우에는 가격이 중요한 고려요인으로 나타났다.

3. 채소의 섭취

Table 2. Expense, Frequency, and Status of Purchasing Vegetable in each age Group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ge % (N)				
	Under 29	30~39	40~49	50~59	
Expense (ten thousands won)					
Under 1/week	31.2(10)	20.0(15)	11.7(7)	41.2(7)	$\chi^2=19.778$
1~2/week	43.8(14)	37.3(28)	43.3(26)	35.3(6)	df=12
2~3/week	18.7(6)	20.0(15)	23.3(14)	17.6(3)	N.S.
3~4/week	6.3(2)	18.7(14)	10.0(6)	0.0(0)	
Over 5/week	0.0(0)	4.0(3)	11.7(7)	5.9(1)	
Frequency					
1/1 day	6.3(2)	16.0(12)	18.3(11)	5.9(1)	$\chi^2=11.690$
1/2 day	37.5(12)	18.7(14)	26.7(16)	23.5(4)	df=9
2~3/week	40.6(13)	52.0(39)	46.7(28)	41.2(7)	N.S.
1/week	15.6(5)	13.3(10)	8.3(5)	29.4(5)	
Status of fresh vegetable					
With Soil	71.9(23)	78.7(59)	85.0(51)	82.4(14)	$\chi^2=6.717$
Trimmed	15.6(5)	13.3(10)	10.0(6)	17.6(3)	df=9
Package	12.5(4)	8.0(6)	5.0(3)	0.0(0)	N.S.
Total	100 (32)	100 (75)	100 (60)	100 (17)	

Table 3. Place of purchasing vegetable in each age group

Place of purchasing vegetables	Age % (N)				
	Under 29	30~39	40~49	50~59	
Local market	44.2(23)	32.0(41)	36.7(40)	33.3(12)	$\chi^2=4.084$ df=3, N.S.
Department store	5.8(3)	18.8(24)	16.5(18)	2.8(1)	$\chi^2=10.240$ df=3, $p<.05$
Supermarket	30.8(16)	32.8(42)	27.5(30)	47.2(17)	$\chi^2=1.415$ df=3, N.S.
Street store	9.6(5)	5.5(7)	9.2(10)	8.3(3)	$\chi^2=1.992$ df=3, N.S.
Grocery store	3.8(2)	3.9(5)	2.8(3)	5.6(2)	$\chi^2=1.001$ df=3, N.S.
Regular market of APT	5.8(3)	7.0(9)	7.3(8)	2.8(1)	$\chi^2=0.890$ df=3, N.S.
Total	100 (52)	100 (128)	100 (109)	100 (36)	

가족구성원의 채소반찬 선호도와 그 이유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가족 구성원 가운데 채소반찬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주부 자신이었으며 남편, 딸, 할머니, 아들과 할아버지 순이었으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아들, 딸, 남편, 할아버지, 주부본인, 할머니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살펴볼 때 남자보다 여자가 채식을 선호하며, 어른보다 자녀(특히 아들)가 채소반찬을 싫어한다고 볼 수 있다.

자녀 가운데 아들이 채소섭취를 싫어하는 것은 김 등¹²⁾의 남자어린이보다 여자어린이의 채소섭취회수가 많았다는 보고와 박 등¹⁰⁾의 남자고등학생보다 여자고등학생의 채소 섭취빈도가 높았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가족 모두 채식을 좋아하는 사례도 15.2%로 나타났다. 채소반찬을 좋아하는 이유로는 '자주 먹어서 좋아한다'가 58.7%로 가장 많았으나 '맛이 있어서 좋아한다'는 경우는 없었다. 싫어하는 이유로는 '맛이

Table 4. Consideration factors in purchasing veget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reference	Nutrition	Price	Organic vegetable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751	0.361	0.361	-1.474
High school	-1.483	0.390	0.709	0.384
Junior college	-0.917	-0.578	1.342	0.152
College	-1.328	0.788	0.756	-0.216
Graduate school	1.427	-0.080	-0.829	-0.518
Age				
Under 29	-1.440	0.281	0.877	0.281
30~39	-0.805	-0.069	1.428	-0.554
40~49	-1.483	0.572	0.281	0.629
50~59	-1.339	0.552	0.937	-1.500
Monthly income (Ten thousands won)				
50~99	-1.486	0.591	0.304	0.591
100~150	-1.493	0.516	0.603	0.374
150~200	-1.498	0.538	0.422	0.538
Over 200	-1.248	0.631	0.962	-0.345

*) Analyzed by proc prinqual in SAS program; the lowest value-the most consideration factor, the highest value-the least consideration factor.

Table 5. Preference and reasons of choosing vegetable dishes in family members

Family member	% (N)		
	Like	Dislike	
Housewives	42.4(78)	2.2(4)	
Husband	31.0(57)	19.6(36)	
Doughter	4.9(9)	25.0(46)	
Son	1.1(2)	48.4(89)	
Grandfather	1.1(2)	3.3(6)	
Grandmother	4.3(8)	1.6(3)	
All member	15.2(28)	0.0(0)	
Total	100 (184)	100 (184)	
Reasons			
Like	% (N)	Dislike	% (N)
Eat frequently	58.7(108)	Tastless	45.6(84)
Abundant of nutritional value	25.0(46)	Eat not frequently	25.0(46)
Flavor	9.2(17)	Texture	14.7(27)
Texture	4.9(9)	Flavor	12.0(22)
Color	2.2(4)	Lack of nutritional value	2.2(4)
Delicious	0.0(0)	Color	0.5(1)
Total	100 (184)		100 (184)

없어서'가 45.6%로 가장 많았고 '자주 먹지 않아서', '조식감이 싫어서', '향기가 싫어서', '영양가가 부족하므로' 및 '색깔이 싫어서'의 순서로 나타났다. 따라서 채소반찬의 섭취를 증가시키기 위하여 채소의 조리법을 개발하여 맛있는 채소반찬을 만드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로 보인다.

4. 채소의 조리법

채소 조리법중 생채, 숙채, 샐러드 및 김치류를 자주 이용하는 순서대로 번호를 적게 한 후 proc prinqual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등의 인구통계적 변인에 관계없이 주부가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채소 조리법은 김치류로 나타났다. 자주 이용하지 않는 조리법으로 20, 40 및 50대는 샐러드이고 30대는 숙채를 자주 이용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조사대상자 주부가 가장 선호하는 채소 조리법은 김치류이며 자주 이용하지 않는 조리법은 샐러드로 확인되어 고려시대의 김치무리에서 발전되어 온 김치류가 현재에도 가장 선호되고 있는 채소 조리법으로 나타났다. 김치류를 제외한 나머지 3가지 조리법 가운데 서양식의 샐러드 보다는 생채와 숙채를 주부가 더 자주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입맛의 변화가 매우 서서히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Table 6. Preferable cooking methods of veget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Raw vegetable	Cooked vegetable	Salad	Kimchi (Pickling)
Age				
Under 29	0.068	0.068	1.153	-1.289
30~39	0.386	0.569	0.540	-1.495
40~49	0.114	-0.193	1.253	-1.174
50~59	-0.254	0.254	1.198	-1.198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775	-0.229	0.775	-1.321
High school	0.075	0.075	1.145	-1.295
Junior college	0.398	-0.065	1.013	-1.346
College	0.517	0.466	0.517	-1.500
Graduate school	0.500	0.500	0.500	-1.500
Monthly income (ten thousands won)				
50~99	0.047	0.607	0.772	-1.426
100~150	0.323	0.225	0.887	-1.435
150~200	0.010	0.010	1.214	-1.235
Over 200	0.508	-0.059	0.923	-1.373

*Analyzed by proc prinqual in SAS program; the lowest value-the most preferable cooking method, the highest value-the least preferable cooking method.

Table 7. Frequency of purchasing vegetable dish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N)					Total	
	3~4 /week	1~2 /week	1/2 weeks	1/month or over			
Age							
Under 29	6.7(1)	26.7(4)	33.3(5)	33.3(5)	100(15)	$\chi^2=15.33$ df=9	
30~39	6.4(3)	23.4(11)	19.1(9)	51.1(24)	100(47)		
40~49	14.3(4)	0.0(0)	21.4(6)	64.3(18)	100(28)	N.S.	
50~59	10.0(1)	0.0(0)	10.0(1)	80.0(8)	100(1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0(0)	0.0(0)	0.0(0)	100.0(5)	100(5)	$\chi^2=17.143$ df=12	
High school	9.6(5)	9.6(5)	17.3(9)	63.5(33)	100(52)		
Junior college	0.0(0)	25.0(4)	31.3(5)	43.7(7)	100(16)	N.S.	
College	16.0(4)	24.0(6)	28.0(7)	32.0(8)	100(25)		
Graduate school	0.0(0)	0.0(0)	0.0(0)	100.0(2)	100(2)		
Residential area							
Seoul	11.5(9)	9.0(7)	23.1(18)	56.4(44)	100(78)	$\chi^2=11.977$ df=3 $p<.01$	
Suburb	0.0(0)	36.4(8)	13.6(3)	50.0(11)	100(22)		
Total	(9)	(15)	(21)	(55)	(100)		

5. 가공된 채소반찬 구입

백화점 및 시장의 반찬가게에서 만들어진 채소반찬을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54.3%

(100명)였으며 Table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구입빈도는 연령, 교육수준, 월수입 등의 변인과 관계없이 주로 1달에 1회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1회 정도 구입한다고

Table 8. Reasons of purchasing vegetable dish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venience % (N)			
	No	Yes	Total	
Age				
Under 29	66.7(10)	33.3(5)	100(15)	$\chi^2=1.763$
30~39	74.5(35)	25.5(12)	100(47)	df=3
40~49	75.0(21)	25.0(7)	100(28)	N.S.
50~59	90.0(9)	10.0(1)	100(10)	
Monthly income (ten thousands won)				
50~99	61.5(8)	38.5(5)	100(13)	$\chi^2=10.384$
100~149	93.9(31)	6.1(2)	100(33)	df=3
150~199	58.8(10)	41.2(7)	100(17)	$p<.05$
Over 200	70.3(26)	29.7(11)	100(37)	
Total	(75)	(25)	(100)	
Need small amounts (N)				
	No	Yes	Total	
Size of family				
Single	25.0(1)	75.0(3)	100(4)	$\chi^2=20.021$
2	40.0(4)	60.0(6)	100(10)	df=6
3	50.0(9)	50.0(9)	100(18)	$p<.01$
4	65.0(26)	35.0(14)	100(40)	
5	93.3(14)	6.7(1)	100(15)	
6	100.0(10)	0.0(0)	100(10)	
7	100.0(3)	0.0(0)	100(3)	
Family type				
Nuclear family	62.0(49)	38.0(30)	100(79)	$\chi^2=11.556$
Extended family	94.7(18)	5.3(1)	100(19)	df=2
Others	0.0(0)	100.0(2)	100(2)	$p<.01$
Total	(67)	(33)	(100)	
Special taste % (N)				
	No	Yes	Total	
Family type				
Nuclear family	55.7(44)	44.3(35)	100(79)	$\chi^2=7.251$
Extended family	26.3(5)	73.7(14)	100(19)	df=2
Others	100.0(2)	0.0(0)	100(2)	$p<.05$
Total	(51)	(49)	(100)	

하였으나 거주지역에 따라서 유의적 차이($p<.01$)를 보여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이 지방에 사는 사람들보다 채소반찬을 자주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소반찬을 구입하는 이유를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게 하였을 때 '별미로 한번 먹어보려고'(49명) 구입하였다가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가족수가 적어서 매우 소량만 필요하므로'(33명), '편리하므로'(25명), '시간이 부족해서'(19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입 이유중 인구통계적 변인에서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8). '편리하므로 채소반찬을 구입한다'는 이유는 월수입에서 유의적 차이($p<.05$)를 보여 월평균소득이 100~149만원에 해당하는 집단을 제외한 나머지 소득층에서 '편리하므로 채소반찬을 구입한다'고 하였다. '소량 필요해서 채소반찬을 구입한다'고 응답한 경우 가족수와 가족구성의 변인에 의해 각각 유의적 차이($p<.01$)를 나타내어 가

Table 9. Reasons for not purchasing vegetable dish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od additives % (N)			
	No	Yes	Total	
Residential area				
Seoul	51.6(33)	48.4 (31)	100(64)	$\chi^2=4.340$ df=1 $p<.05$
Suburb	25.0(5)	75.0(15)	100(20)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80.0(4)	20.0(1)	100(5)	$\chi^2=3.589$ df=4 N.S.
High school	42.6(23)	57.4(31)	100(54)	
Junior college	41.7(5)	58.3(7)	100(12)	
College	50.0(6)	50.0(6)	100(12)	
Graduate school	0.0(0)	100.0(1)	100(1)	
Total	(38)	(46)	(84)	

족수가 적을수록, 확대가족보다는 핵가족과 기타의 경우 소량 필요해서 채소반찬을 구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확대가족이 '별미로 먹어보려고 채소반찬을 구입한다'고 하여 가족구성의 변인에 의해 유의적 차이($p<.05$)를 보였다. 이것으로 시부모를 모시고 사는 확대가족 일수록 먹거리를 가정에서 준비하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식문화 가치관이 유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채소반찬을 구입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설문조사자는 45.7%(84명)이었으며 해당되는 이유를 모두 표시하였을 때 '비위생적이므로 구입하지 않는다'가 가장 많았고(64명), '반찬을 사 먹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서'(54명), '첨가물의 함유가능성'(46명), '가격이 비싸므로'(31명), '맛이 없어서'(30명)의 순으로 나타났다. 구입하지 않는 이유 중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9). 서울에 거주하는 사람은 '유해한 첨가물의 함유가능성' 때문에 채소반찬을 구입하지 않는다는데 48.4%가 응답한 반면, 지방에 사는 사람은 75.0%가 그렇다고 하여 서울에 사는 사람보다 지방에 사는 사람이 첨가물의 함유 가능성 때문에 채소반찬을 구입하지 않는 것($p<.05$)으로 나타났다. 한 등¹⁰⁾의 연구에 따르면 교육수준, 월수입이 높을수록 식품첨가물 사용에 대한 정부의 법적 규제에 대한 인식이 높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판매되는 채소반찬의 첨가물 함유가능성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6. 김치 구입

김치 구입경험의 유무, 빈도 및 이유를 조사하여 백분율, 평균점수 및 인구통계적 변인과의 상관성을

조사하였다. 김치를 구입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27.2%(50명)로 채소반찬 구입경험의 54.3%에 비하여 매우 낮게 나타나 김치구입이 비교적 일반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구입의 빈도(Table 10)는 연령에 관계없이 대부분 1달 또는 그 이상의 기간에 한번 정도 김치를 구입하였으나, 주거형태에 따라 유의적 차이($p<.01$)를 보여 아파트 및 기타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립주택이나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김치를 자주 구입한다고 볼 수 있다.

김치를 구입하는 이유를 해당되는 사항에 모두 표시하게 하였을 때 '시간이 부족하므로 김치를 구입한다'가 가장 많았고(21명), '별미로 먹어보려고'(15명), '편리하므로'(13명) 그리고 '소량 필요하므로'(11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입 이유 중 인구통계적 변인에서 유의성을 보이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1). 김치를 구입하는 사람 가운데 서울에 거주하면서 '편리하므로 구입한다'고 응답한 사람은 32.5%이고, 지방 거주자중 편리함 때문에 김치를 구입한 사람은 0%로 나타났으며, 직업이 없는 전업주부의 16.7%, 직업이 있는 주부의 50%가 편리함 때문에 김치를 구입한다고 하였다. 즉 서울에 거주할수록($p<.05$), 직업이 있는 주부일수록($p<.05$) 편리함 때문에 김치를 구입한다고 여겨진다. 또한 '김치가 소량 필요해서 구입한다'는 경우 수입에서 유의차이($p<.01$)를 보여 수입이 낮은 응답자는 소량 필요해서 김치를 구입한다고 하였다.

설문대상자 주부의 72.8%(134명)가 김치 구입경험이 없다고 하였으며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를 해당되는 곳에 모두 표시하도록 하였을 때 첫번째 이유로는 '김치를 사 먹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서'(79명)이며, 그 다음이 '비위생적이므로'(66명), '첨가물이 합

Table 10. Frequency of purchasing kimch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N)			Total	
	1~2 times/week	1 time/2 week	1 time/month or over		
Age					
Under 29	14.3(1)	14.3(1)	71.4(5)	100(7)	$\chi^2=11.503$
30~39	4.2(1)	4.2(1)	91.6(22)	100(24)	df=6
40~49	12.5(2)	12.5(2)	75.0(12)	100(16)	N.S.
50~59	0.0(0)	66.7(2)	33.3(1)	100(3)	
Housing					
APT	11.5(3)	7.7(2)	80.8(21)	100(26)	$\chi^2=18.283$
House	0.0(0)	26.7(4)	73.3(11)	100(15)	df=6
Tenement house	0.0(0)	0.0(0)	100.0(8)	100(8)	$p<.01$
Others	100(1)	0.0(0)	0.0(0)	100(1)	
Total	(4)	(6)	(40)	(50)	

Table 11. Reasons of purchasing kimch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Convenience % (N)			
	No	Yes	Total	
Residential area				
Seoul	67.5(27)	32.5(13)	100(40)	$\chi^2=4.392$
Suburb	100(10)	0.0(0)	100(10)	df=1 $p<.05$
Occupation				
Unemployed	83.3(30)	16.7(6)	100(36)	$\chi^2=5.821$
Employed	50.0(7)	50.0(7)	100(14)	df=1 $p<.05$
Total	(37)	(13)	(50)	
Need small amounts % (N)				
	No	Yes	Total	
Monthly income (ten thousands won)				
50~99	28.6(2)	71.4(5)	100(7)	$\chi^2=12.149$
100~149	80.0(12)	20.0(3)	100(15)	df=3
150~199	91.7(11)	8.3(1)	100(12)	$p<.01$
Over 200	87.5(14)	12.5(2)	100(16)	
Total	(39)	(11)	(50)	

유되어 있을지 모르므로'(61명), '맛이 없어서'(48명), 그리고 '가격이 비싸므로'(40명)의 순서로 나타났다.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중 인구통계적 변인에 따라 유의성이 있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Table 12). '김치구입 자체가 좋지 않게 생각되어 판매되는 김치를 사지 않는다'라고 응답한 경우 거주지역에 따라 유의적 차이 ($p<.01$)를 보였다. 지방에 거주하는 사람의 81.3%, 서

울거주자의 52%가 김치구입 자체를 좋지 않게 생각 하였으며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김치구입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판매되는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 위생적인 요인을 지적한 응답자는 연립주택 거주자가 다른 주거형태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유의적 ($p<.05$)으로 많았으나 교육수준, 연령 등의 변인에 의

Table 12. Reasons for not purchasing kimchi

Demographic characteristics	Poor sanitation % (N)			
	No	Yes	Total	
Housing				
APT	46.3(31)	53.7(36)	100(67)	$\chi^2 = 10.125$ df = 4 $p < .05$
House	65.8(25)	34.2(13)	100(38)	
Tenement house	28.6(6)	71.4(15)	100(21)	
Shopping area	80.0(4)	20.0(1)	100(5)	
Others	66.7(2)	33.3(1)	100(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77.8(7)	22.2(2)	100(9)	$\chi^2 = 9.403$ df = 4 N.S.
High school	43.7(35)	56.3(45)	100(80)	
Junior college	63.2(12)	36.8(7)	100(19)	
College	60.9(14)	39.1(9)	100(23)	
Graduate school	0.0(0)	100.0(3)	100(3)	
Total	(68)	(66)	(134)	
	Food additives % (N)			
	No	Yes	Total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100.0(9)	0.0(0)	100(9)	$\chi^2 = 11.564$ df = 4 $p < .05$
High school	53.8(43)	46.2(37)	100(80)	
Junior college	52.6(10)	47.4(9)	100(19)	
College	47.8(11)	52.2(12)	100(23)	
Graduate school	0.0(0)	100.0(3)	100(3)	
Housing				
APT	50.7(34)	49.3(33)	100(67)	$\chi^2 = 9.709$ df = 4 $p < .05$
House	68.4(26)	31.6(12)	100(38)	
Tenement house	33.3(7)	66.7(14)	100(21)	
Shopping area	60.0(3)	40.0(2)	100(5)	
Others	100.0(3)	0.0(0)	100(3)	
Total	(73)	(61)	(134)	
	Not good % (N)			
	No	Yes	Total	
Residential area				
Seoul	48.0(49)	52.0(53)	100(102)	$\chi^2 = 8.635$ df = 1 $p < .01$
Suburb	18.7(6)	81.3(26)	100(32)	
Total	(55)	(79)	(134)	
	Tasteless % (N)			
	No	Yes	Total	
Occupation				
Full time housewife	67.8(80)	32.2(38)	100(118)	$\chi^2 = 12.368$ df = 4 $p < .05$
Professional	50.0(2)	50.0(2)	100(4)	
Clerical work	100.0(2)	0.0(0)	100(2)	
Service	40.0(2)	60.0(3)	100(5)	
Part time	0.0(0)	100.0(5)	100(5)	
Total	(86)	(48)	(134)	

해서는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첨가물이 함유되어 있을지 모르므로’ 판매되는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 중졸의 0%, 고졸의 46.2%, 전문대졸의 47.5%, 대졸의 52.2% 및 대학원졸의 100%가 예라고 대답하여 학력이 높을수록 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p < .05$)으로 나타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첨가물에 대한 관심이 증가된다는 한 등¹⁶⁾의 연구결과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맛이 없어서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다’는 문항에서는 직업형태에 따라 유의적 차이($p < .05$)를 보여 part time 일을 하는 주부들은 맛이 없어서 판매되는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7. 채소의 영양 및 관련된 질병의 지식

응답자의 97.8%가 익힌 채소보다 신선한 채소에 영양가가 더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였으며 채소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생각되는 영양소 3가지를 선택하는 문항에서 설문조사자의 92.9%가 비타민, 무기질 및 섬유소를 선택하여 주부들의 채소에 관한 지식이 비교적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채식위주의 식생활이 육식위주의 식생활보다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육식보다는 채식위주의 식생활이 건강에 좋다고 한 사례는 83.2% (153)로 대부분의 응답자가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응답자에게 설명하라고 하였을 때 막연히 ‘건강에 좋으니까’, ‘cholesterol이 함유되지 않아서’, ‘채소가 좋아서’의 세 가지 설명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그 가운데 cholestrol이 함유되지 않아서 채소가 건강에 좋다고 응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Table 13). 이러한 응답은 설문대상자가 cholesterol의 인체 기능 즉, 인체 조직의 필수 성분으로 뇌와 신경 조직에

Table 13. Reasons of choosing vegetable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 (N)				
	Good for health	No cholestrol	Just good	Total	
Age					
Under 30	9.7(3)	64.5(20)	25.8(8)	100(31)	$\chi^2=10.890$ df=6
30	24.6(15)	41.0(25)	34.4(21)	100(61)	
40	25.0(12)	45.8(22)	29.2(14)	100(48)	N.S.
50	15.4(2)	23.1(3)	61.5(8)	100(13)	
Education level					
Middle school	0.0(0)	60.6(6)	40.0(4)	100(10)	$\chi^2=6.057$ df=8
High school	23.5(20)	47.1(40)	29.4(25)	100(85)	
Junior college	24.0(6)	32.0(8)	44.0(11)	100(25)	N.S.
College	19.3(6)	48.4(15)	32.3(10)	100(31)	
Graduate school	0.0(0)	50.0(1)	50.0(1)	100(2)	
Residential area					
Seoul	18.6(21)	44.2(50)	37.2(42)	100(113)	$\chi^2=3.243$ df=2 N.S.
Suburb	27.5(11)	50.0(20)	22.5(9)	100(40)	
Family type					
Nuclear family	21.7(26)	47.5(57)	30.8(37)	100(120)	$\chi^2=3.798$ df=4
Extended family	16.1(5)	38.7(12)	45.2(14)	100(31)	
Others	50.0(1)	50.0(1)	0.0(0)	100(2)	N.S.
Occupation					
Unemployed	23.2(29)	44.8(56)	32.0(40)	100(125)	$\chi^2= 2.20$ df=2 N.S.
Employed	10.7(3)	50.0(14)	39.3(11)	100(28)	
Total	(32)	(70)	(51)	(153)	

Table 14. Nutritional knowledge about good vegetables on certain disease

Vegetable	Certain disease	%(N)
Carrot	Eyesight, Cancer, Liver disease, Constipation Gastric disease, Infertility, Diabetes, Anemia	14.1(26)
Dropwort	Liver disease, Hypertension, Detoxification, Diabetes Cancer	16.8(31)
Radish	Digestion, Headache, Cough	12.5(23)
Soybean sprout	Hangover, Cough	8.7(16)
Kale	Liver disease, Diabetes, Cancer	7.1(13)
Cabbage	Gastric disease	6.0(11)
Pumpkin	Edema, Renal disease	6.0(11)
Garlic	Gastric disease, Artherosclerosis, Cancer	5.4(10)
Cucumber	Diuretic, Burn, Hangover, Gastric disease, Skin beautifier	4.9(9)
Root of Chinese bellflower	Cough, Asthma, Sputum	4.9(9)
Mugwort	Gastric disease, Bleeding of nose, Sterilization	4.9(9)
Mushroom	Cancer, Arteriosclerosis	4.3(8)
Onion	Gastric disease, Hypertension, Artherosclerosis, Insomnia	3.8(7)
Scallion	Diarrhea, Constipation. Digestion	3.8(7)
Potato	Burn, Cancer, Gastric disease, Constriction	3.3(6)
Lotus root	Constipation, Bleeding of nose	3.3(6)
Spinach	Anemia, Constipation	3.3(6)
Yam	Diabetes	3.3(6)
Welsh onion	Diabetes, Insomnia, Cold	2.7(5)
Lettuce	Insomnia	2.7(5)
Sweet potato	Constipation. Cancer	2.7(5)
Doduk	Asthma	2.2(4)
Dolnamul	Liver disease, Renal disease	2.2(4)
Ssumbagui	Liver disease, Increase of appetite	2.2(4)
Tomato	Constriction, Cancer, Hypertension, Beautiful face	2.2(4)
Sinsuncho	Gastric disease, Liver disease, Diabetes	1.6(3)
Naenge	Liver disease	1.6(3)
Ginger	Eyesight	1.6(3)
Beet	Infertility, Diabetes	1.1(2)
Dalgaebee	Diabetes	1.1(2)
Chicory	Diabetes, Hypertension	1.1(2)
Perilla leaves	Atopic skin disease	1.1(2)
Godeulbaegee	Increase of appetite	1.1(2)
Burdock	Renal disease, Clarification of blood	1.1(2)
Woogugee	Constipation	1.1(2)
Gilgungee	Heart disease	1.1(2)
Celery	Diabetes	1.1(2)
Aloe	Gastric disease	0.5(1)
Beereum	Decrease of fever	0.5(1)
Chinese cabbage	Constipation	0.5(1)
Kimchi	Cancer	0.5(1)

농축되어 있고 담즙산과 비타민 D의 전구물질 등의 기능¹⁹⁾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cholesterol이 해로운 물질이라는 부정적인 측면만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

먹는 식품이 질병을 고칠 수 있다는 醫食同源²⁰⁾과 우리나라에 전해져 오는 민간요법을 살펴볼 때 식품이 질병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주부가 알고 있는 채소와 질병과의 지식을 조사하기 위하여 질병치료에

Table 15. Nutritional knowledge about harmful vegetables on certain disease

Vegetable	Certain disease	%(N)
Bracken	Cancer, Decreasing of stamina	9.8(18)
Spinach	Calculus	7.6(14)
Mungbean sprout	Inhibition of chinese medicine	1.6(3)
Taro	Allergy	1.1(2)
Geundae	Calculus	1.1(2)
Red Pepper	Gastric disease	1.1(2)
Soybean sprout	Contamination of heavy metal	0.5(1)
Sprout of potato	Dermatitis, Food poisoning	0.5(1)
Eggplant	Dermatitis	0.5(1)
Radish	Inhibition of chinese mdicine	0.5(1)

유효한 채소 또는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와 그 질병을 쓰게 하였다.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로 당근, 미나리 및 무우 등 42가지가 조사되었다. 이 등²¹⁾의 전통적 민간요법 연구에 따르면 고혈압에 토마토, 미나리 등이 좋으며 마늘, 버섯, 양파 등이 동맥경화증에 효과적이라 하였는데 본 조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섬유질이 풍부한 식품이 변비를 예방한다²²⁾는 사실이 잘 알려져 있는데 본 설문지의 많은 응답자가 당근, 고구마, 시금치, 감자, 토마토, 양배추 등이 변비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β -carotene이 풍부한 당근이 암을 예방²³⁾하고 마(yam)가 당뇨병에 유효하다²⁴⁾는 것을 주부응답자가 알고 있었다. 일반적으로 고사리가 암을 유발시킨다²⁵⁾고 알려져 있는데 본 조사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왔으며 이 외에도 콩나물로 인한 중금속 중독 가능성이 지적되었고 그 밖에 8종의 채소가 질병 유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V. 요 약

주부들의 채소 소비 형태를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조사대상자의 73.4%가 30, 40대로서 고졸이 57.6%를 차지하였고 서울거주자가 77.2%, 아파트에 거주하는 사람이 50.5%, 핵가족이 78.8%, 4~5인의 가족수를 가진 가정이 56%, 월 평균수입이 150~200만원 이하가 50%였으며 전업주부가 84.8%였다.

2. 채소의 구입비용은 일주일에 1~2만원, 구입빈도는 일주일에 2~3회, 신선한 채소는 주로 흙이 붙어 있는 손질되지 않은 상태를 구입하였다. 구입장소는 주로 시장의 채소가게와 농협을 포함한 슈퍼마켓이었고 백화점에서 채소를 구입하는 연령은 주로 30, 40대로 나타났다($p < .05$).

3. 채소구입시 연령, 교육수준, 수입에 따라 우선적

고려요인이 달랐으나, 모두 무공해에 비교적 관심이 많았으며, 수입이 적은 경우에 가격이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4. 가족구성원 중 채소반찬을 가장 좋아하는 사람은 주부 자신이었으며 가장 싫어하는 사람은 자녀 특히 아들이었다.

5. 채소조리법 중 기본적으로 김치류가 가장 선호되었고 자주 이용되지 않는 조리법은 샐러드로 나타났다.

6. 응답자의 54.3%가 채소반찬의 구입경험이 있었으며 별미로 먹기 위한 이유가 가장 많았다. 서울 거주자가 자주 구입하였으며($p < .01$) 저소득층에서는 편리함 때문에($p < .05$), 가족수가 적을수록 핵가족일수록 소량 필요해서($p < .01$), 확대가족은 별미로 먹어보려고($p < .05$) 채소 반찬을 구입하였다. 판매되는 채소반찬을 구입하지 않는 이유는 비위생적인 요인이 가장 컸고, 첨가물 함유 가능성 때문에 채소반찬을 구입하지 않는 경우는 서울보다 지방거주자가 더 많았으며($p < .05$) 교육수준에 관계없이 첨가물의 함유가능성을 염려했다.

7. 김치의 구입경험이 있는 사람은 27.2%였으며 구입이유는 시간부족이 가장 많았다. 서울에 거주할수록($p < .05$), 직업이 있는 주부일수록($p < .05$) 편리함 때문에 김치를 구입하였고 수입이 낮은 가정은 소량 필요해서 구입하였다($p < .01$).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 이유로는 김치를 사먹는 것이 좋지 않게 생각되어서가 가장 많았다. 지방에 거주할수록($p < .01$) 김치구입 자체를 좋지않게 여겼고(연립주택에 거주하는 사람은 비위생적 요인으로 김치를 구입하지 않았고($p < .05$)), 학력이 높을수록 첨가물 함유 가능성 때문에 김치를 구입하지 않았으며($p < .05$), 시간적 여유가 비교적 있는 part time 일을 하는 주부는 맛이 없어서 김치를 구입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8. 채소에 함유된 영양소 3가지는 비타민, 무기질 및

섬유소로 응답하였고 응답자의 83.2%는 채소에는 cholesterol이 함유되어 있지 않으므로 채식이 건강에 좋다고 하였다. 또한 질병치료에 유효한 채소는 당근 등 42가지, 질병을 유발시키는 채소는 고사리 등 10종을 지적하였으며 이들은 과학적 증명이 가능하거나 민간요법으로 전해지고 있는 내용이다.

이상과 같이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의 채소 소비 형태에 대하여 살펴보았는데 가공된 채소반찬과 김치의 구입은 현재까지 일반화되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으나 김치보다 채소반찬의 구입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덕성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다니는 주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앞으로 다양한 계층의 주부를 대상으로 하여 폭 넓은 채소소비에 관련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V. 감사의 말

본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식물자원연구센터의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으며, 많은 조언을 주신 식품영양학과 이미순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 윤서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2): 201, 1993.
- 이미순, 정미숙, 이성우.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3(4): 359, 1988.
- 모수미.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2): 181, 1994.
- 이일화.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8(4): 359, 1993.
- 이해성, 이연경, 서영주. 한국영양학회지 27(1): 59, 1994.
- 통계청. 1993년 사망원인통계연보. 통계청, 1994.
- Torsdottir, I., Alpsten, M., Holm, G., Sandberg, A.S. and Tolli, J. J. Nutr. 121: 795, 1991.
- Kay, R.M. and Truswell, A.S. Am. J. Clin. Nutr. 30: 171, 1977.
- 정영진. 한국영양학회지 17(1): 10, 1984.
- 박성효, 정낙원, 이효지. 한국조리과학회지 7(1): 67, 1991.
- 조우균, 이종미. 한국조리과학회지 7(2): 51, 1991.
- 김상애, 鈴木久乃. 한국영양학회지 21(4): 223, 1988.
- 통계청. 1994년 도시가계연보. 통계청, 1995.
- 남궁석.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4): 379, 1994.
- Jolly, D.A., SchutzM, H.G., Diaz-Knauf, K.V. and Johal, J. Food Technol. 11: 60, 1989.
- 한왕근, 이귀주. 한국조리과학회지 7(4): 23, 1991.
- McNutt, K.W., Powers, M.E. and Sloan, A.E. Food Technol. 1: 72, 1986.
- 남궁석, 이해임, 이정윤, 김만수.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9(3): 289, 1994.
- Wardlaw, G.M., Insel, P.M. and Seyler, M.F. Contemporary nutrition, p. 165, Mosby, Missouri, 1994.
- 황호관.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1(4): 311, 1986.
- 이금숙, 황춘선. 한국식생활문화학회지 5(3): 331, 1990.
- Shils, M.E., Olson, J.A. and Shike, M. Modern nutrition in health and disease, p. 95, Lea and Febiger, PA, 1994.
- Ziegler, R.G. American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 53: 265S-269S, 1991.
- 김평자. 덕성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
- 윤재영, 이서래. 한국식품과학회지 20: 558, 1988.